

돼지콜레라를 예방합시다

- 홍보부 -

최근 충남북과 경북, 전남 일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양돈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.

돼지콜레라는 급성전염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농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백신을 철저히 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다.

다음은 돼지콜레라의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이다.

1. 주요 발생원인

- 중간수집상 또는 가축시장으로부터 자돈을 구입 사육
- 예방주사 미접종, 실시적기 상실, 접종방법 미숙
- 축사소독 및 외부 출입통제 등 관리 소홀

2. 예방 및 방역조치

- 돼지 구입시 수집상이나 시장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만한 농장에서 예방주사를 실시한 돼지 구입
- 구입된 돼지는 격리 사육하여 3~4주간 관찰하고 이상이 없을 때 예방주사 실시
- 구입시는 건강해 보였다 하더라도 질병이 감염된지 얼마 안 된 돼지는 1~2주 이내 발병하기 때문에 병든 돼지 구별이 매우 중요함.
- 축사 및 운동장 주위를 주기적으로 소독

- 병원체가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인 출입자 통제
- 병든 돼지를 처분할 때에는 2m 이상 깊이 땅 속에 묻거나 소각하여 전염되지 않도록 함.
- 예방주사약을 보관할 경우 5°C 내외의 냉장고 속에 보관하고 유효기간내 사용
- 돼지콜레라에 걸리거나 의심이 가면 신속히 가축위생시험소, 시·군청 등에 신고하여 방역조치를 받도록 함.
- 축주(경영자)는 수시로 예방주사 적기 접종, 누락 및 축사 소독 등 예방관리 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종사원이 예방주사 기피사례 등을 사전 예방할 것.

3. 예방주사 접종 요령

- 평상시 발생이 없을 때
 - 생후 30~40일령에 1차
 - 생후 50~60일령에 2차 2회 주사
- 현재 농장에 발생되고 있거나 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을 때(긴급시)
 - 분만후 첫 젖을 먹기 전 새끼돼지에 접종
- 번식용 어미돼지
 - 접붙이기 2~4주 전에 1회 주사
- 예방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 없이 귀 뒷부분 또는 뒷다리 근육내에 1ml 주사